

“세월호 참사는 共業... 뼈아픈 참회 필요”

서울 조계사 등 전국 사찰
6일 봉축 법요식서 애도

박근혜 대통령 최초로 법요식 참석
진제 스님 “말 한 마디에 신중하라”
팽목항 법당 법회... “부처님 가피를”



조계종은 5월 6일 서울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이 아끼 부처님 관육을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은 5월 6일 세월호 침몰 현장인 진도 팽목항 법당에서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희생자들이 영원한 진리의 낙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산승도 진리의 등불을 하나씩 선사하고자 하오니, 모든 영혼들께서는 이 등불을 가지고 극락세계에 왕생해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와 함께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교가 나설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세월호 사고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며, 기본 상식을 지키지 않은 우리 모두의 공업이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뼈아픈 통찰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면서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소통과 화합, 지혜와 힘을 모아 안전한 사회,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법요식은 불법 흥포와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불자들을 격려하는 ‘불자대상’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다. 올해 수상자로는 김동건 불교포럼 대표, 루이스 랭카스터 UC 버클리대학교 명예교수, 탈런트 선우유여 씨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 법요식에는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와 원불교 남궁성 교정위원장 등 이종교인과 카랑 상라마(Kanman Singh Lama) 네팔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 김민수 청년유니온노조 위원장, 홀리스 활동가 조성래 씨, 서울시 복지대상 수상자 황화희 씨, 새터민 가족 등이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에서도 부처님의 오신 뜻을 기리고 실종자들의 무사 생활과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식이 열렸다.

조계종은 진도 팽목항 법당에서 6일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자원 봉사자, 실종자 가족들이 참석했다.

진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실종자들은 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희생자들은 재난과 고통없는 세상에서 편히 드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을 딛고 평안심을 어서 빨리 회복해 예전의 모습처럼 건강하게 사는 것을 돌아가신 영가들도 바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실종자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침몰 사고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어린이날 맞아 천진불 106명 탄생

봉은사 제3회 유아수계법회... 200여 명 참석

“오늘 참석한 아이들이 슬기롭고, 자비로운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인연 이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성장해 가길 기원합니다.”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5월 3일, 봉은사에서 천진불 106명이 탄생했다. 제 3회 유아수계법회가 열린 것.

이날 봉은사 법당에는 복종 태아에서부터 3세에 이르는 영·유아들과 미취학 아동 106명과 가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수계법회는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전국사찰의 물을 하나로 합하는 합수요식을 시작으로 관정의식과 산화의식으로 진행

됐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 외에도 임산부 등도 참석해 수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어릴 때부터 바르게 자라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계식 이후 일생동안 아이들이 불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참석한 김정연 씨는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착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 수계법회에 참석했다. 연휴를 맞아 가족끼리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서울 강남 봉은사는 5월 3일 제3회 유아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지 원학 스님이 유아에게 마정수기를 내리고 있는 모습.

파주시, 민추본 ‘도담도담’에 3천만원 전달

이인제 시장 “시민모금운동 확대해 꾸준히 지원”

경기도 파주시가 4월 30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흥, 이하 민추본)에 기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민추본이 진행하는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도담도담’에 자체적으로 조성해온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기부한 것이다.

기금전달에는 이인제 파주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9일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도담도담 캠페인 선포식에 참가,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과 민통선 지역을 걸으며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부를 ‘도담도담’ 캠페인 지원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리적 위치상 북한과 인접한 파주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어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었으나 민간 교류가 끊긴 상황이라 기금활용을 못하고 있었다”며 “도담도담 캠페인이 시작되는데는 것을 알고 위원회에 취지를 설명하고 기금전달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숨은 이야기를 밝혔다. 이어 “파주시에서도 캠페인 모금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진행해 꾸준히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추본을 대표해 기금을 전달받은 자승 스님은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뜻을



경기도 파주시는 4월 30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 북한 어린이 지원 캠페인 후원금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

밝혔다. 이번 기금전달식에는 민추본 사무총장 진효스님과 이인제 파주시장을 비롯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복록 부위원장, 김경선 위원, 조재열 위원과 파주시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허정스님이 참석했다.

‘도담도담’은 영양결핍과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북한 아이들을 위해 영양식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민추본과 아름다운 동행(대표이사 자승)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민추본은 앞으로 다양한 모금캠페인을 진행, 올해 안에 북한 어린이들에게 구호품과 수액세트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부처님오신날 불교 1번지 예의없는 타종교인들

예수재단, 조계사 인근서 노상 전도... 물지각 행위

부처님오신날은 불자들에게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도들이 부처님오신날 분위기를 훼손하는 물지각 한 행동으로 불자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예수재단은 5월 6일 조계사 인근 공평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전도 행위를 했다. 그들은 ‘예수는 유일한 그리스도’ ‘동성결 혼금지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는 등의 노상 전도를 했다.

조계사에서 200여m 떨어진 곳이라고 해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를 찾

위한 불자와 시민들의 이동 경로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종교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위였다. 실제, 조계사로 오는 불자들이 제지하자 예수재단 측은 도리어 불자들을 나무라며 갈등을 빚었다.

불자들이 “부처님오신날이다. 다른 곳에서 하라”고 제지하자 예수재단 측은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집회의 자유가 있다. 절차에 맞춰 집회신고했다”고 으름장을 놔다.

이어 “사찰의 연등이 왜 걸거리로 나오냐. 연등회에 왜 국가 예산이 지원되냐”고 예의 없는 행동을 이어갔다.

현장에는 관찰서 경찰관과 사복경찰이



기독교 예수재단은 5월 6일 조계사 인근 공평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전도행위를 해 불자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있었지만 부처님오신날을 망치기 위한 집회에 대한 특별한 제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이 같은 집회가 문제가 없냐”고 묻자 “집회 신고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잘라 말했다.

매년 부처님오신날마다 이어지는 연등회 폐쇄, 연등 훼손 등 종교 갈등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중오방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돼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사회국장 덕은 스님은 “한국 사회는 다문화, 다종교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이로 인해 문화, 종교적 갈등의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후보자 시절 불교계에 제시한 중요법제 제정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사 방필석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귀(貴)하고 소중한 자녀의 이름은
가적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다.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是必無濟人之日이요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改名은必無改名之時라

★ 갑오년 귀(貴) 자녀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

신생아 작명

개명·아호·상호

역학개인지도

세상 만물이 난조(暖燥) 및 한습(寒濕)의 조화에 의하여 이루어 지듯이 인간도 자연의 조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신생아는 춥다, 덥다 표현이 어려우니 환경이 안 맞으면 우는 것이 곧 언어이다.

부모가 춥다, 덥다는 부모 체질에 맞는 환경은 부모는 좋지만 부모와 체질이 다른 아기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본 연구소는 체질, 적성, 성격 등을 참조하여 지은 이름은 아기를 건강하게 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명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방필석 대내외활동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대통령 각 3회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前 스리랑카수상과 함께 청와대 방문 ● 2011년 인도 세계불교대회 초청 방문
--------------	---	--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어디서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거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썩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5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7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전화 02)739-8259, 02)738-5577 www.8259.co.kr 국내외 우편발송
작명보시금 20만원 우리은행 : 306-07-194422 / 농협 : 053-02155-065 예금주 : 방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건지동)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법사 방 필 석